

스포츠 종합 경기장 혹은 특정 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집약된 산물과 같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 선수들만이 경기를 진행하고 즐기는 곳이 아닌, 이러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이들이 만든 경기를 보고 함께 응원해주는 팬들과 더불어 여러가지 요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바로 경기장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정말 경기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경기장이 최근에는 경기장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과학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Smart Stadium 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경기장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2018 년 국내에서 진행된 평창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평창의 주민이 많지 않아 지방세, 주민세, 소득세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고, 결국 개막식과 폐막식을 끝으로 운영비 문제로 인하여 경기장을 폐쇄하게 된 것이다. 그 후에는 경기장을 아예 없애버려 현재는 성화대만 남아있다고 한다. 경기장이란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과 노력이 모인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었지만, 아쉬운 끝을 남기게 된 사례이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올림픽 플라자 조성이라 하여 야외 공연장 및 방문하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들이 함께 존재해 그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것이다. 경기장의 현대화를 진행하는 와중에 생긴 현실과의 충돌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경기장에 공학자들이 편의 시설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시설들을 경기장에 투입하여 가족 문화 복합 공간 등 새롭게 경기장을 경제 상품화를 시킨 것이다. 결국 공학자들의 노력 속에 경기장을 유지하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 오게 만든 셈이다. 결국 경기장은 경기를 보고 응원하러 온 팬들에게 만족도를 주어야만 경기장으로서 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를 더욱 편하게 보는 문제, 음식 문제, 화장실 문제 등 경기장에는 많은 팬들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학자들은 이러한 팬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학 기술을 경기장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내가 느꼈던 경기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티켓 구매였다.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하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고, 미리 예매를 하더라도 좌석까지 향하는 길이 정말 험난 했다. 최근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기장이 K 리그에 생기고 있다고 한다. FC 서울은 'FC 서울 스마트 경기장'이라 하여 다양한 ICT 기술을 모바일로 구현하여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관람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게 구축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 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FC 서울 경기장이 스마트 경기장으로 선정이 되었다. 스마트 티켓, 좌석 3D view, AR, 좌석 찾기 모의 주행 등 여러 콘텐츠 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구현이 되어 있다. 내가 힘들었던 티켓 문제는 스마트 티켓이라 하여 예매, 발권, 입장까지 티켓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처리하여 발권 및 입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불어 친구에게 선물 기능과 좌석까지의 길 찾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옛날에는 불필요하게 소비되었던 시간과 기다림이 이제는 스마트한 ICT 기술의 도입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 많은 기술들이 더 도입이 되어 팬들이 더욱 경기장을 찾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 좋은 해결책인 것 같다.